

“수족관 금붕어 폐사 10만원 보상을”

■ 광주 수돗물 오염사고 피해보상 요구 백대

피부에 반점과 알레르기 20만원 달라
모발 이식 뒤 머리감아 손상 800만원
영아 목욕시켜 피부병 2000만원 요구
“복통” “김치 폐기” “소변 못 봐” 호소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문상필)는 30일 시의회 3층 환경복지위원회실에서 시의원들과 상수도사업소, 용연정수장 관계자, 환경 및 수질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돗물 악몽 გადა 투입’ 사고 경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12일 발생한 ‘수돗물 오염 사고’에 따른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의 개인적인 피해보상 요구는 75건에 피해액은 4295만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피해접수는 사고가 발생한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됐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향후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접수지역은 주로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에 집중됐으며, 이중 남구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접수 대부분은 수돗물을 음용 또는 사용한 뒤 복통과 발진·가려움증 등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신체적 피해 호소였다.

수돗물 오염에 따른 심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머리를 감은 뒤 머리카락이 손상됐다는 피해도 접수됐다. 피해보상 요구액은 대부분 20만~50만원 상당이었다.

이 중 오염된 수돗물로 수족관 물을 교체한 뒤 금붕어 12마리가 폐사했다며 1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수돗물로 김치를 담갔다 폐기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가족 4명 중 3명이 복통을 호소하는 가정도 있었고, 세탁물 변색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도 접수됐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도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샤워 후 소변을 보지 못하고, 미용실에서 염색한 머리가 상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고역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생후 50일된 영아를 오염된 수돗물로 목욕한 뒤 피부병이 발생했다며 2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시민도 있었고, 모발 이식 수술을 한 뒤 수돗물로 머리를 감아 피해를 봤다며 8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보상 요구가 지금은 찾아오고 있다”면서 “향후 신체·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만큼 피해보상 접수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수돗물 오염’과 관련한 민원은 신체·정신적 피해 호소 75건을 비롯, 모두 250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중 2036건은 단순 문의였으며, 저수조 청소 및 요금 감면 문의 294건, 정수필터 교환 등 물건 피해가 98건이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최대 일본 범선 입항

30일 오전 여수엑스포장 해양경찰부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범선 ‘카이오마루’ 입항식이 열렸다. 다음달 2일 ‘일본의 날’을 기념해 여수를 찾은 카이오마루는 1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신내 공개행사를 연다. 또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인 카마이시시의 초등학생들이 그린 회화 16점을 가져와 박람회장 내 엑스포홀에 전시할 예정이다.

연철뉴스

‘친환경’ 무색한 여수박람회 1회용품 쓰레기 하루 13t

“여수세계박람회를 다녀온 여섯살 배기 딸이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 비닐을 먹고 거북이가 죽었다’는 박람회장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죠?” 라고 물어봐 당황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주부의 글이다.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관에서는 멸종 위기의 듀공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빅오쇼에서는 오염된 미래의 바다를 보여준다.

하지만 박람회장에서는 쓰레기가 넘쳐나 등 ‘친환경 박람회’라는 구호를 퇴색시키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막 후 하루 평균 쓰레기차 10대 분량인 12~13t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물리는 해상 무대 빅오 주변에서만 하루 5t 이상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빅오에서는 빅오쇼를 비롯해 대형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 관람객들이 많아 덩달아 쓰레기 양도 많다. 또 정식 관람석이 2600석에 불과해 일부 관람객이 신촌지 등의 바다에 깔고 앉은 뒤 공연이 끝난 뒤 그대로 버리고 가 쓰레기가 남치고 있다.

좀 더 무대와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보기 위한 자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미리 돛자리를 놓고 음식 사먹는 관람객들도 많이 쓰레기 배출을 부추기고 있다.

박람회장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쓰레기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식사 시간에 도시락과 패스트푸드를 구입해 박람회장 곳곳에서 식사한 뒤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돛자리를 가져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전에는 관람객이 몰려 셔틀버스 승객이 많지만, 오후에는 4~5명만 태운 채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셔틀버스의 1회당 평균 승차 인원은 고작 13명에 불과했다. 특히 주말에 비해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적은 화~목요일의 평균 승차 인원은 7.6명~9.3명에 그치고 있어,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셔틀버스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광환씨(38·여수시 여서동)는 “셔틀버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소형 버스를 투입해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빛의 만평

- 김중두



이게 뭐니까?!

오늘의 여수엑스포

지자체관에서 최고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전남도가 오늘 지자체의 날에 초대됐다. 전남도관은 전시관 안에 대형 깃발 수조를 선보여 어린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계와 망종이 등 살아있는 바다 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지자체의 날에는 국악 관현악과 전통무용 등을 선보인다.

- ◇지자체 날-전남도의 날(천막극장·오후 2시)
- ◇국가의 날-말리(엑스포홀·오후 12시 30분)
- ◇양글라 문화 공연(엑스포홀·오후 3시)
- ◇아르헨티나 탱고 공연(엑스포홀·오후 6시 30분)
- ◇2012 WFB 한국대회 기념공연(해상무대·오후 7시)
- ◇제 4차 해양학·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 총회 폐막(컨퍼런스홀·오후 9시)

- ◇어제의 관람객 수=3만6643명(30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관람객 수=87만157명

일렉트로 탱고그룹 ‘바호폰도’ 환상 무대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2회 연속 수상(2005년, 2006년)한 영화 음악계의 거장 구스타보 산타올라(Gustavo Santaolalla)가 이끄는 일렉트로 탱고그룹 ‘바호폰도(Bajofondo)’가 여수엑스포장에서 31일과 다음달 1일 환상적인 무대를 펼친다.

바호폰도는 영화 ‘바벨’,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영화음악상을 2회 연속 수상(2005년, 2006년)한 영화 음악계의 거장 구스타보 산타올라가 이끄는 일렉트로 탱고그룹 ‘바호폰도(Bajofondo)’가 여수엑스포장에서 31일과 다음달 1일 환상적인 무대를 펼친다.

그동안 국내에서 광고음악으로 수차례 쓰인 이들의 음악은 탱고에 부

리를 두고 있지만, 단순히 탱고 음악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반도네온과 바이올린이 함께 뿜어내는 탱고 본연의 격정적이고 감렬한 사운드는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낸다.

여수의 밤을 뜨겁게 달군 바호폰도의 열정적인 무대는 31일 오후 6시 엑스포홀과 6월 1일 오후 7시 빅오 해상무대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환상제주 불사본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특전1. 특식(전북해물전골+전복탕+우동구이) | 특전2. 제주빙판 기념사진 1매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209,000~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169,00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스타크루즈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5인실기준) 1인 ₩139,00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 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팅 -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호텔 조식 후 관광 - 오십록초차박물관 - 칭기스칸의 검은 깃발 **더휴파크 공연** 신방산/용머리해안/해월기념관 - 중식(전북해물전골+전복탕+우동구이) - 석부작제마공원 (신택관광)서귀포유람선 - 올레길코스체험(하트산책로/중문색달해변) - 동백꽃동산 카멜리아일랜드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탈라엔(토종점점) - (신택관광)메이아일랜드 - 숲속 기차여행 곳자울 관광 에코랜드 숲속열차 - 아름다운 초원을 달려며 즐기는 **조영알غام체림 중식(토종돼지고기+전+박걸리)** - 성음민속마을(전통초가마을체험)

3일 천가지 아름다운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일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지대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설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제주공항 도착 후 티케팅 제주공항 도착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 골프 패키지 (월, 화, 수 출발 / 목요일 출발 1인 1만원 추가 / 4인 이상 1조 출발)

크라운오더블렉스 + 스카이힐 ₩329,000~ 블랙스톤or세인트모 + 라온 ₩419,000~

포항시향: 왕복항공료, 그린피 36종 + 골프웨어 호텔 1박 + 렌트카 | 불포항시향: 캐디피, 커피, 시차, 유류할증료 별도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오!

제1급 신라/롯데 호텔 특가 패키지 2박3일

출발일: 6월 24일, 25일 단 2회! | 요금(1인기준, 유류세별도): 415,000원 | 출발일: 단, 2회!

■ 버스 P.K.G - 포항시향: 항공료, 숙박료, 2일 관광료, 식사 4회 - 불포항시향: 유류할증료, 석식, 티, 선택관광
■ 렌터카 P.K.G - 포항시향: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 불포항시향: 유류할증료, 자차보험, 개인여행

제주 자유 여행 / 항공 + 펜션 + 렌트카 48시간 (중중출발) 3일

8인기준 175,000원부터 | 6인기준 180,000원부터
4인기준 185,000원부터 | 2인기준 200,000원부터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유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담당: 공지혜 대리 | 전복/총남 T.063-255-0064 | 제주 T.1600-4800 | 대구 T.053-425-074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6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 영민빌딩 201호 | 서울 T.02-6404-4708 | 부산 T.051-469-7030